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보수의 새로운 길 모색  
발제자 : 송 복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일 시 : 2017년 03월 02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제245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3월 2일 정책세미나에서는 송 복 교수를 연사로 '보수의 새로운 길 모색'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보수의 길이란 초심(初心)의 길이다. 초심의 초자(初字)는 옷 의(衣)와 칼 도(刀)로 구성되었다. 천을 칼로 자르며 옷을 만든다는 뜻이다. 옷을 잘못 만들었을 때 칼로 베고 다시 만든다는 뜻도 포함된다. 만일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초심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보수의 길은 이처럼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길과 같다. 흔히들 “보수는 망했다.”, “보수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금을 막론하고 보수 세력은 언제나 건재(健在)했다. 현재 상황은 ‘보수 정당이 파탄(破綻)상태에 이르렀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튼튼한 보수 세력 토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듯 새로운 보수 정당을 설립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보수 본연의 행태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보수는 유연(柔軟)하다.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다. 굽어지거나 꺾일 수 있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강경파 혹은 극우파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둘째, 보수는 여유(餘裕)를 갖는다.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정권을 잡아도 장기 집권을 결코 탐하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우선시하며 ‘협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셋째, 잘못 만든 옷을 수선하며 초심의 길을 걷듯 보수는 보수(補修)하며 나아간다.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올바른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 관점에 따라 보수 본연의 의미는 네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 이념적 보수는 사고의 방향을 달리하는 경험주의, 점진주의, 실용주의와 법치주의로 분류된다. 시대·장소에 따라 국가 운영제도를 달리하는 제도적 보수가 두 번째 본연의 의미다. 사회 혹은 국가에 따라 보수가 내거는 정당 정책은 모두 다르다. 보수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지킴으로써 국가 정통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산업화와 성장을 이루어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기업경쟁의 자율이 보장되도록 작은 정부가 자리 잡아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심리적 보수는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나타난다. ‘심리적’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고난 성향을 따르다 보면 습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자제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진 자가 앞서 모범을 보이는 수범적 보수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식, 돈, 명예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들은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 부른다. 보수주의자는 가진 만큼 내줄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기반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주축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레는 굴러갈 수 있다. 보수는 튼튼한 기반이자 주축이다. 보수 본연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면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교양인, 상식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수 본연의 의미와 행태를 반드시 내면화(內面化)하고 실천하여야 진정한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다.

## ■ 보수의 길은 『초심(初心)의 길』

### : 길을 잘못 들었다면 초심의 길로 돌아가라

- 보수의 길이란 초심(初心)의 길이다. 초심의 초자(初字)는 옷 의(衣)와 칼 도(刀)로 구성되었다. 천을 칼로 자르며 옷을 만든다는 뜻이다. 옷을 잘못 만들었을 때 칼로 베고 다시 만든다는 뜻도 포함된다. 만일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초심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보수의 길은 이처럼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길과 같다.
- 흔히들 “보수는 망했다.”, “보수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한다. 보수는 인간 삶의 토대(土臺)이자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주축(主軸)이다. 그러므로 ‘망했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인간사를 돌아보면 보수 세력이 부침(浮沈)은 거듭하였지만 절대 폐망(廢亡)한 적은 없다. 고금을 막론하고 보수 세력은 언제나 건재(健在)했다. 현재 상황은 ‘보수 정당이 파탄(破綻)상태에 이르렀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튼튼한 보수 세력 토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듯 새로운 보수 정당을 설립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보수의 새로운 길 모색’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보수’는 우리나라의 보수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양 역사에서 발전해온 정치이념 ‘보수주의(Conservatism)’ 그 자체를 의미한다.

## ■ 보수 본연의 행태(行態)

### : 진정한 보수가 되기 위한 3가지 행태

- 보수 본연의 행태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보수는 유연(柔軟)하다.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다. 굽어지거나 꺾일 수 있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상대

#### ❖ 첫번째 특징. 유연(柔軟)

- 유능제강(柔能制剛) -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제압한다.
- 건전한 보수주의자는 결코 강경(強硬)해선 안 된다.

#### ❖ 두번째 특징. 여유(餘裕)

- 여유있는 자가 먼 훗날까지 바라보고 설계한다.
- 정권에 관한 보수의 여유는 '주고 받는 소통'을 지향한다.

#### ❖ 세번째 특징. 보수(補修)

- '보수(保守)는 보수(補修)다'
- 상황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신하며,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림 1] 보수 본연의 세 가지 행태

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강경파 혹은 극우파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유능제강(柔能制剛)하기에 보수는 유연함으로 굳센 것들을 제압한다. 이는 경험칙이자 철칙이다.

- 둘째, 보수는 여유(餘裕)를 갖는다.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한다. 정권을 잡아도 장기 집권을 결코 탐하지 않는다.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우선시하며 '협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소통하지 않고 독점하면 정치·경제·사회가 정체되고 부패되기 때문이다. 여유를 갖고 먼 훗날까지 바라보며 설계를 해 나가야 진정한 보수다.
- 셋째, 잘못 만든 옷을 수선하며 초심의 길을 걷듯 보수는 보수(補修)하며 나아간다. 끝없이 스스로를 고쳐나간다. 깊은 상황 통찰력을 발휘하여 서바이벌(Survival)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올바른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보수(補修)하지 않으면 진정한 보수(保守)가 아니다.

## ■ 보수 본연의 의미

### : 관점에 따른 보수 본연의 의미 네 갈래

- 관점에 따라 보수 본연의 의미는 네 갈래로 나뉜다. 이념적 보수는 사고의 방향을 달리 하는 경험주의, 점진주의, 실용주의와 법치주의로 분류된다. 경험주의는 역사, 전통과 관습을 중시한다. 시행착오와 경험적 오류를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본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근거삼아 주장을 펼친다. 보수가 자칫 역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면 수구주의자 혹은 반동주의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실제 현실(Virtual Reality)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봐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점진주의는 밀뿌리부터 서서히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 프랑스 혁명과 같이 구조를 급격하게 개혁하면 오히려 구조반동(Structural Reaction)이 일어난다. 보수는 절대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점진적으로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 다음으로 실용주의는 세 가지의 편(便)을 지키고자한다. 국민을 편안(便安)하게, 국민 생활을 편리(便利)하게 그리고 상황에 알맞게 편익(便宜)을 도모한다. 예나 지금이나 보수는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은



[그림 2] 보수 본연의 네 가지 의미

법치주의다. 보수는 실정법(實定法)을 반드시 준수한다. 사람에 의한 통치(Rule of Man)나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냐를 묻는다면 현대사회는 법에 의해 통치된다. 역사적으로 법은 보수의 근간이다. 허나 현행법에는 악법도 상당히 많다. 아무리 악법이 많더라도 보수는 그 악법들이 고쳐지기 전까지 법에 충실해야 한다.

- (1) 이념적 보수**    경험주의 : 역사와 전통, 관습 중시
- 
- 점진주의 : 개혁은 서서히
- 
- 실용주의 : 국민의 편리와 편의 도모
- 
- 법치주의 : 반드시 실정법(實定法) 준수

[그림 3] 이념적 보수의 네 갈래

- 시대·장소에 따라 국가 운영제도를 달리하는 제도적 보수가 두 번째 본연의 의미다. 사회 혹은 국가에 따라 보수가 내거는 정당 정책은 모두 다르다. 보수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지킴으로써 국가 정통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산업화와 성장을 이루어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기업경쟁의 자율이 보장되도록 작은 정부가 자리 잡아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One in, Two Out'으로 상황에 맞는 규제 하나를 만들었다면 도태된 규제 둘을 없애는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열거법체계(Positive Regulation)는 순법체계(Negative Regulation)로 전환되어야 한다. 열거법체계는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모두 규정한 후 그 위반 여부를 살핀다. 반대로 순법체계는 금지하는 것만 규정하여 법에 대한 해석과 활용의 폭이 넓어져 법 적용 대상에게 유리할 수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자율화되는 지름길이다.

- 심리적 보수는 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나타난다. ‘심리적’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낯선 것보다 친숙한 것을 좋아하고 익숙한 것을 따르게 되는 성향 모두 타고나는 것들이다. 타고난 성향을 따르다 보면 습관에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자제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b>(2) 제도적 보수</b>	국가 안보
: 시대 장소에 따라 국가 운영 제도를 달리 한다.	산업화 성장
	시장경제·기업경쟁 자율화
	작은 정부로 규제완화
	세계화

[그림 4] 제도적 보수가 오늘날 이루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 마지막으로 가진 자가 앞서 모범을 보이는 수범적 보수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수주의자는 일반적으로 가진 자들이다. 지식, 돈 혹은 명예를 가진 자로 보수주의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갖는다. 그 중 지식, 돈, 명예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들은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 부른다. 이들은 세 가지 희생적 행동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 다음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시인 이형기의 시 『낙하』에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구절이 있다. 기득권을 갖지 못 할까 걱정하고, 기득권을 가진 후에는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건 보수의 자세가 아니다. 평상시에 늘 약자를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희생도 발휘해야 한다. 남을 많이 배려하고 베푸는 자의 후손은 번성하고 남에게 인색한 자의 후손은 폐망한다. 보수주의자는 가진 만큼 내줄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 진정한 보수주의자란

### : 보수 본연의 의미와 행태를 내면화(內面化)해야

- 기반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주축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레는 굴러갈 수 있다. 보수는 튼튼한 기반이자 주축이다. 보수 본연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면 아무리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교양인, 상식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수 본연의 의미와 행태를 반드시 내면화(內面化)하고 실천하여야 진정한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다.

## 245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보수 본연의 행태와 본연의 의미를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기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보수라 부르는 우리들도 그리 겸손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난 만큼 우리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대화·현대화 기간이 짧았다. 시대변화에 맞는 시대정신, 문화와 윤리의식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餘裕)를 갖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알맞은 시기가 오면 보수 본연의 행태와 의미가 내면화될 것이고,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2** 여유(餘裕)가 보수 본연의 행태라면 어떤 시관(時觀)을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가?

**답변** 과거를 바라보는 시관(Retrospective)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관(Prospective) 중 보수는 과거를 바라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하지만 과거만을 생각하는 건 아무런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보수가 될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보수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